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19
MAR 13 2020

발간년월 2020년 3월 13일 (통권 제119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0(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주요 산유국간 감산 합의 실패로 유가 폭락
- 러 2035 북극전략,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활성화
- 코로나 19는 러시아 명태 가격에 영향을 주는가.
- 러, 미국과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논의
-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원유 수입계약 체결

주요 통계

- 2019년 11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주요 산유국 간 감산합의 실패로 유가 폭락

■ 석유수출국 등 주요 산유국 간 감산 합의 실패

- 지난 6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으로 이뤄진 산유국 연합체 OPE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유량 감산 규모인 일일 210만 배럴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추가 감산(일일 150만 배럴)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실패함
- 이에 따라 유가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배럴 당 45.27 달러로 9% 이상 폭락했음
- 러시아 결정에 맞서 사우디는 원유 가격을 배럴당 6~7 달러만큼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을 일일 123만 배럴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가 전쟁을 촉발시킴

■ 러시아의 결정 이면에는 미국 석유산업 겨냥

- 이와 같은 러시아의 결정은 2018년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순위에서 미국에 의해 밀려난 러시아가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미국 셰일석유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러시아는 지난 3여 년간 유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OPEC의 감산 노력에 동참해 왔으나, 매년 감산할 때마다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미국에게 빼앗겨와 불만이 커져 왔음
- 러시아는 감산으로 저렴한 아랍과 러시아 석유를 시장에서 제외시키고, 원유가격을 올려 상대적으로 채굴단가가 높은 미국 셰일 석유의 시장 진입을 돕는다는 인식에 따라 미국 견제 차원에서 감산에 반대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미국의 對러시아 에너지 제재 조치가 미국의 셰일 석유 혁명으로 인해 가능해 졌다고 보고, 최근 미국이 러시아 로즈네프트 자회사에 가한 제재 등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있다는 평가도 있음

김지혜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전문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참고자료

a) <https://www.cnn.com/2020/03/08/putin-sparks-an-oil-price-war-and-us-companies-may-be-the-victims.html> (2020.3.9. 검색)

b) <http://edition.cnn.com/2020/03/10/business/russia-us-shale-oil-putin-opec/index.html>

a) (2020.3.10. 검색) <https://www.constructionreview.com/news/hyundai-plans-540m-investment-russian-far-east>

c) <https://edition.cnn.com/2020/03/06/business/oil-prices-opec-disarray/index.html>
(2020.3.10. 검색)

러 2035 북극전략,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활성화

■ 러시아 푸틴 대통령 3월 5일 ‘2035년 북극전략’에 서명^{a)b)}

- 2035 북극전략은 러시아 재정부, 에너지부, 극동북극개발부가 함께 수립한 것으로 2019년 말 러시아 정부 및 국가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북극 지역 개발을 통해 러시아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으로 북극권 개발 관련 우선순위별 과제들과 정책 시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북극지역에서의 러시아 주권 확보 및 온전한 러시아 영토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평화적 관점에서 북극지역의 안정성 강화 및 상호 유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북극권 원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제 혜택을 통한 북극권 투자유치 활성화^{b)}

-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두마(State Duma)에서도 북극 지역 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공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음. 러시아 정부는 북극지역에서 석유, 천연 가스 및 기타 광물 자원의 대규모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
- 투자자들의 세율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 바렌츠 해 서쪽지역에서 베링 해 동쪽에 이르는 북극해의 주요 석유 매장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새로운 법률에 따라 모든 탄화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관하여 현재 생산세의 5%가 인하되고, 또한 대략 절반 정도의 라이선스 범위를 연근해로 확장할 계획. 세금 공제는 처음 15년간의 생산 물량에만 적용되며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와 자회사인 보스토크 오일(Vostok Oil)의 주요 신규 유정 개발 지역을 포함하여 북극의 동쪽 지역에서의 석유 개발 사업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
- 극동개발부는 석유화학 부분을 포함한 북극 지역의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세제 혜택을 통해 향후 15년간 러시아 북극지역에 대략 15조 루블의 투자유치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

■ 북극권 자원개발을 기반으로 북극항로 개발에 박차^{a)b)c)}

- 유리 트루프네프(Yuri Trutnev) 부총리는 작년 12월에 개최된 북극위원회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정한 2025년까지 북극항로 연간 8천만 톤 물동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관료들은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극항로 관리국은 2019년 북동항로 물동량은 역대 최대치로 대략 3,150만 톤으로 2017년 대비 430%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북동항로의 물동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천연가스(LNG)로 야말 반도에 위치한 사베타(Sabetta) 터미널에서 2천 5십만 톤의 LNG(65%)가 수송되었으며 예니세이 강(Yenisey River)에 위치한 노 니켈 항구(Nornickel's Port)를 통해 150만 톤의 광물(5%)이, 그리고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의 노비 포트(Novy Port)에서 770만 톤의 광물(24%)이 북동항로를 통해 수송되었음
- 러시아 정부는 북극자원 개발의 접근성을 확보와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주요 운송로 기능 강화를 위해 북극항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이경호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klee88@kmi.re.kr/051-797-4925)

참고자료

- a) <https://jamestown.org/program/russia-prepares-ambitious-economic-strategy-for-arctic-region/> (2020.3.10.검색)
- b) <https://www.arctictoday.com/putin-signs-russias-new-arctic-master-plan/> (2020.3.10.검색)
- c)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20/02/russian-arctic-shipping-430-percent-three-years?fbclid=IwAR0DwLueUKEuUPMhQ_Ummi_xCmy343qdzkMtOZPAy0v6MNbKH0XSHmBIKI (2020.3.10.검색)

코로나 19는 러시아산 명태가격에 영향을 주는가.

■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 차질, 러시아산 명태가격 급락 초래 주장 제기^{a)}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현재 수산물 시장에서 눈에 띄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생산 공장이 방역 작업으로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노동자들의 감염우려로 2주간 격리되는 등 수산물 가공 공정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
- 중국 수산물 시장에서 선호하는 25cm 규격의 명태 현재(2020.02) 가격대는 \$1,300-\$1,350으로 지난 1월 가격(\$1,420-\$1,520)대비 8~11% 하락하였음. 하지만 2019년 12월(약 \$1,700) 가격과 대비하면 약 21%로 대폭 하락한 상황. 업계에서는 두 달 사이에 수산물 가격이 \$450-\$500 정도 하락했다는 판단

그림 1. 2018-2020 러시아산 명태 가격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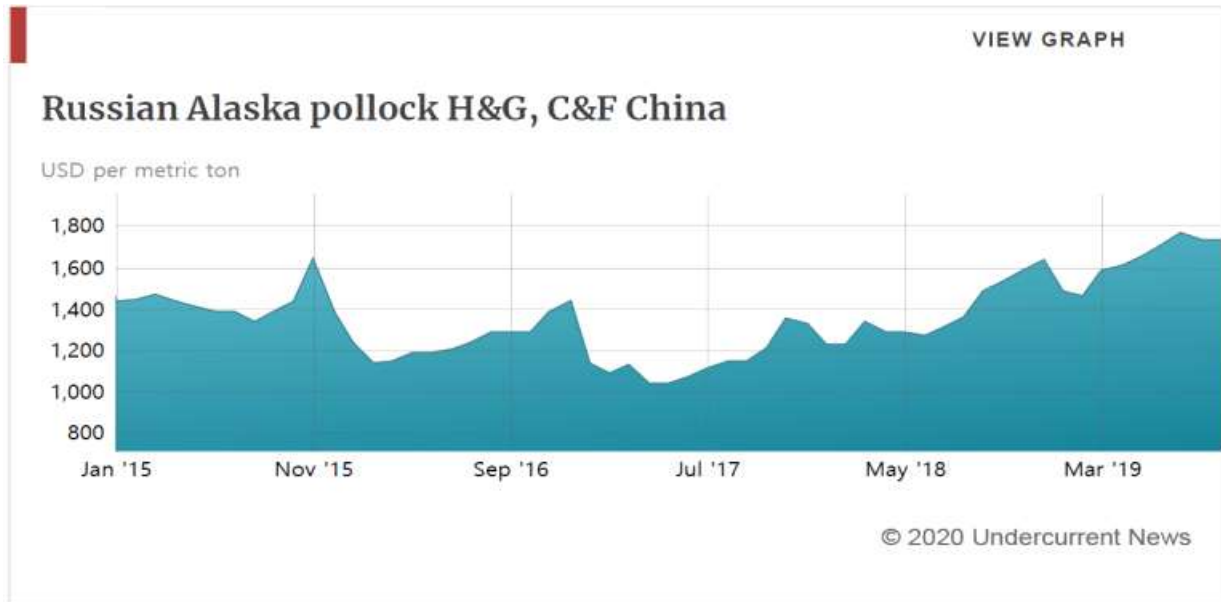


- 러시아 소재 수산물 대기업들은 아프리카로 유통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한 업계 종사자는 몇몇 회사는 이미 국내 시장에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유통했다고 전하였음. 중국의 업계 종사자들 또한 명태를 포함한 가공된 어류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라 춘절을 기점으로 하락한다는 의견도 제시^{a)b)}

- 일반적으로 중국의 대명절인 춘절시기, 대부분의 생산라인이 휴식기를 가지기에 중국 수산물 공장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 결론적으로 매년 연말 명태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2019년은 예년과 달리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들이 소량의 물량을 구매하면서 러시아산 가공 명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음

그림 2. 2015-2019 러시아산 명태 가격추세



- 한편 다른 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명태의 가격이 급락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년 중국의 춘절 시기 전후로 생산량이 하락하면서 가격이 변동되기에 다음 주 중으로 수산물 시장이 정상화 될 것이며, 생산 공장들도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
- 또한, 전년대비 생산라인 복귀가 늦춰 졌을 뿐만 아니라 해양관리협회(MSC)가 오호츠크해 역에서 인증제도(어업이 잘 관리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를 진행하면서 가공 어류의 가격 하락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는 판단
- 중국 당국이 도시 간 이동을 통제하면서 중국 수산물 가공의 허브 도시인 청도로의 노동력 유입이 잠시 지체된 상황. 현재 격리기한이 2주 정도인 것을 고려 대략 2월 10일 이후로는 가공어류의 가격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

이경호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klee88@kmi.re.kr/051-797-4925)

참고자료

-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0/02/19/russian-hg-pollock-prices-dive-as-corona-virus-delays-china-processing-re-start/>(검색일: 2020년 3월 10일)
-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12/19/russian-hg-pollock-prices-up-as-chinese-buy-to-keep-plants-going/>(검색일: 2020년 3월 10일)

러시아, 미국과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논의

■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드(북부)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러시아는 자국 북부에서 발트 해를 거쳐 독일로 직접 연결되는 노드 스트림 가스관의 수송 용량을 늘리기 위해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왔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드 스트림-2'와 '터키 스트림' 가스관 건설 사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바 있음. 이로 인해 가스관 부설에 참여하는 스위스 기업인 올시즈는 바로 건설 중단을 발표했음
- 러시아는 자체 수중 파이프라인 부설 전문 선박인 '아카데미 체르스키'를 통해 노드 스트림-2 건설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완공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 가스회사 나프트가즈는 노드 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추가 조치를 미국 당국과 논의함

- 3월 3일, 안드레이 코볼레프 나프트가즈 회장은 미국의 노드 스트림-2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추가 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2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기를 소망한다고 피력함. 또한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2 건설은 향후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산 가스 수송의 수익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함
- 코볼레프 회장은 노드 스트림-2 제재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힘

■ 미국의 유럽 기업에 대한 제재에 있어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의 결정이 유럽의 주권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불과하다고 주장

-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러시아의 주요 언론사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노드 스트림-2 참가국 제재 결정은 유럽연합(EU)의 주권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 그는 북부 유럽 국가인 스웨덴에게 노드 스트림-2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유럽과 러시아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함

- 미국의 제재와 그 영향에 있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회장인 조셉 보렐의 의견을 인용하며,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치외법적 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럽연합의 정책과 관행이 제3국의 위협이나 제재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림3. 안드레이 코볼레프 나프토가즈 회장



김현진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yunjink24@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7894019?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2F%2Fyandex.ru%2Fnews (2020년 3월 9일 검색)
- b) https://iz.ru/982983/2020-03-04/naftogaz-obsudil-s-ssha-novye-mery-protiv-severno-potoka-2?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2020년 3월 9일 검색)
- c) <https://iz.ru/980486/elnar-bainazarov/trubnye-otnosheniia-v-shvetsii-prizvali-zavershit-severnyi-potok-2> (2020년 3월 9일 검색)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과 원유수입 계약 체결

■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 SOCAR는 벨라루스 국영 석유화학공사(Belneftekhim)와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한 첫 수출 계약에 합의했음

- 이브라힘 아흐메도프(Ibrahim Əhmədov) SOCAR 대외관계국 부국장은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Interfax-Ukraine) 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출 일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초 공급량은 8만 톤이 될 것이며, 현재 2차 공급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음
- 원유는 조지아 습사(Supsa)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에 적재되어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sa)에 도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한편 유조선을 통해 운송되는 아제르바이잔 산 원유는 오데사-브로디 석유 파이프라인(Odessa-Brody Oil Pipeline)을 통해 벨라루스로 수출될 것임
- 한편 벨라루스 측도 아제르바이잔 원유 수입 및 가공 절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원유 운송 기업인 고멜 트랜스네프트 드루즈바(Gomel Transneft Druzhba) 사는 오데사-브로디 송유관을 지난 원유가 마지르 정유공장(Mazyr Oil Refinery)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음
- 블라디미르 시조프(Uladzimir Sizau) 벨라루스 석유화학공사 부사장은 우크라이나 경유 아제르바이잔 산 원유의 벨라루스 수입은 3월 경에 시작될 것이라 밝혔음

■ 벨라루스는 원유 수입 다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 및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 산 석유가스의 영향력은 여전히 벨라루스 정치와 경제에 현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 2017년 벨라루스의 주요 원유 수입 비중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6%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2020년 1월에도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Klaipėda)를 경유하여 러시아 산 원유를 유조선으로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있음
- 그러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yaksandr Lukashenka) 벨라루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석유 가스 가격 협상에서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러시아 또한 석유가스 공급 감축을 통해 벨라루스를 압박하는 전략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2020년 1월 1일 러시아는 벨라루스로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었지만, 1월 4일 곧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도 하였음
-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 산 원유 수입비중을 최대 30~40%까지 단계적으로 경감시키겠다고 천명하는 한편, 누를란 노가예프(Nurlan Nogaye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하여 원유 공급 계약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음

그림 4. 오데사-브로디 파이프라인(우크라이나)와 클라이페다(리투아니아)-나비폴라츠크(벨라루스) 루트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socar-%d0%b1%d1%83%d0%b4%d0%b5-%d0%bf%d0%be%d1%81%d1%82%d0%b0%d0%b2%d0%bb%d1%8f%d1%82%d0%b8-%d0%bd%d0%b0%d1%84%d1%82%d1%83-%d0%b2-%d0%b1%d1%96%d0%bb%d0%be%d1%80%d1%83%d1%81%d1%8c-%d0%bf%d0%be-%d0%bd/2020/03/10/> (2020.3.10.검색)
- https://oec.world/en/visualize/tree_map/hs92/import/blr/show/2709/2017/ (2020.3.10.검색)
- <https://www.reuters.com/article/us-belarus-oil-russia-diversification/belarus-aims-to-cut-russian-oil-supplies-to-30-40-of-its-requirements-belta-idUSKBN1ZK1ED> (2020.3.10.검색)
- <https://www.lrt.lt/en/news-in-english/19/1136372/belarus-calls-for-regular-oil-imports-via-baltics-as-first-shipment-arrives-in-lithuania> (2020.3.10.검색)
- <https://www.marketscreener.com/ENI-413403/news/Clean-Russian-oil-has-reached-Belarus-via-key-pipeline-Moscow-says-28499615/> (2020.3.10.검색)



주요 통계



표 1. 2019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 해역	10.2 (-1.1%)	6.2 (-0.8%)	16.4	-1.1%
북극해	2.8 (-0.4%)	5.9 (-1.4%)	14.7	-1.1%
발트해	8.8 (-1.0%)	11.2 (-0.6%)	20.0	-0.1%
아조프-흑해	6.9 (+0.1%)	12.7 (+0.2%)	19.6	+0.2%
카스피해	0.2 (-3.7%)	0.4 (-10.0%)	0.6	0.0%
합계	28.8 (-0.5%)	36.4 (-0.5%)	65.2	-0.5%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에트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portnews.ru/news/288413/> (검색일: 2020. 2. 20)

표 2.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34,007.2	96,398.2	332,095.5	94,937.7	1,911.8	1,460.5
광물 제품	1,076,942.7	77,727.7	1,047,074.2	7,659.1	29,868.6	70,068.5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80,650.9	6,521.0	980,660.3	6,518.2	0,0	2.8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948.0	65,999.6	4,146.4	65,449.5	801.6	550.1
가죽원료, 모피 제품	4.3	1,996.7	3.9	1,976.9	0.4	19.8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4,515.8	8,035.2	93,897.7	7,866.8	618.1	168.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89.9	16,198.3	177.0	15,447.5	12.9	750.7
금속 및 금속 제품	24,685.1	61,525.2	24,604.0	60,195.0	81.1	1,330.2
기계류	25,569.3	397,905.3	25,025.5	396,054.1	543.8	1,851.2
기타	299,120.4	36,747.3	229,688.3	36,371.1	69,432.0	376.2
합계	1,859,982.6	762,533.4	1,756,712.3	685,957.7	103,270.3	76,575.8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검색일: 2020. 2.20)

표 3.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 생물	2	352.3	0	0	2	352.3	0	0	-	-	-	-
냉동어	72,542	1,929,847.9	583	47,563.8	72,542	1,929,847.9	583	47,563.8	0	0	-	-
연어류	12,387	322,964.7	-	-	12,387	322,964.7	-	-	0	0	-	-
넙치	723	29,457.4	-	-	723	29,457.4	-	-	-	-	-	-
가자미	1,332	14,774.3	-	-	1,332	14,774.3	-	-	-	-	-	-
가자미류	2,023	33,411.3	-	-	2,023	33,411.3	-	-	-	-	-	-
청어	16,164	86,939.7	-	-	16,164	86,939.7	-	-	0	0	-	-
대구	7,545	188,839.8	-	-	7,545	188,839.8	-	-	-	-	-	-
명태	23,728	896,113.1	-	-	23,728	896,113.1	-	-	-	-	-	-
농어	13	1,966.2	-	-	13	1,966.2	-	-	-	-	-	-
간, 곤이 (어란)	2,432	253,085.9	-	-	2,432	253,085.9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1,086	15,416.9	-	-	1,086	15,416.9	-	-	-	-	-	-
생선 필렛, 어육	542	153,137.7	238	4,006.8	542	153,137.7	238	4,006.8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4	1,497.1	79	5,314.0	114	1,497.1	79	5,314.0	-	-	-	-

갑각류	6,209	996,839.2	76	2,479.5	6,209	996,839.2	76	2,479.5	-	-	-	-
계류	5,278	909,332.3	-	-	5,278	909,332.3	-	-	-	-	-	-
조개류	6,979	109,743.5	-	-	6,979	109,743.5	-	-	-	-	-	-
가리비류	186	12,068.5	-	-	186	12,068.5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6,695	66,827.3	64	2,778.7	6,695	66,827.3	64	2,778.7	-	-	-	-
수산 무척추 동물	873	31,141.7	-	-	873	31,141.7	-	-	0	0	-	-
해삼류	247	6,785.6	-	-	247	6,785.6	-	-	0	0	-	-
성게류	626	23,814.4	-	-	626	23,814.4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20.2.20)